



○ 일본 황산암모늄, 동남아 수출 감소 예상

일본의 관련 메이커에 따르면 카프로탁팀의 생산 감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수반하여 동남아시아 시장으로 향하는 황산암모늄 수출에 일부 제동이 걸리고 있어 감소 가 확실시 되고 있다.

일본 암모니아 협회의 통계에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듯이 2000비료년도의 수출은 전년보다 수%의 마이너스가 예측되고 있다.

관련 메이커의 카프로락팀 감산은 이미 보도된 바와같이 작년 가을 이후부터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住友化學, 宇部興產 등이 삭감 혹은 정기보수등으로 감산이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三菱化學이나 도모레이도 감산을 통한 생산 억제의 방향으로 관련 회사들이 이미 널리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化纖 관계등 카프로락팀 수요 저조와 수출이 정체되어 있기 때문에 메이커에 따라서는 20-30%의 삭감이나 정기보수에 의한 일시적인 공장 휴업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 카프로락탐 감산으로 당연히 회수 유안(황산암모늄)의 생산도 평균적으로 떨어졌고, 내수를 제외한 수출 공급 여력은 감퇴하게 된다. 이 때문에 메이커는 물품을 되풀이 하는 변통 때문에 수출고가 답답해지고 약정한 물품이외의 수출은 무리하게 결정하지 않고 가격 등을 고려한 시장·거래처를 선택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유안 수출은 1999년 카프로락탐 생산이 순조로웠기 때문에 크게 상회하여 100만톤 돌파의 기록을 만들었지만, 2000년은 현재 그럭저럭 수 % 감소된 90만톤으로 떨어진 실적이 될 것 같아서 관련상사 등의 동남아 시장으로 향한 수출에 대한 영향은 피할 수 없다고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일부에서는 카프로락탐의 감산이 있다해도 국내 수요나 수출 시장의 경향에 좌우되어 장기적으로 계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유안 수출은 내수의 감소 경향

~~~~~

으로 공급 여력이 변함으로써 『카프로락탐 감산 즉 유안 수출 감소』로 반드시 연동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이런 점에서 동남아를 중심으로 한 2000비료년도의 유안 수출은 전년보다 대폭적으로 하락하는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동 소식통의 추정으로는 현재 2000비료년도의 유안 수출은 전년의 100만톤 초과한 것 보다 적은 것은 확실시 되고 있다고 하면서도 년간 실적은 90만톤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2월 5일 >

## ○ 중국과 동남아시아의 비료시장

중국을 비롯하여 베트남 등 동남아 시장의 비료거래 업무가 1월말부터 서서히 재개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춘절 등의 휴가가 끝난 이후 비료뿐만 아니라 경제, 산업 활동도 점차 정상업무에 복귀하고 있다.

춘절 등의 휴일 연속으로 비료거래는 1월말전에는 중지 상태였으나 1월말부터는 휴가가 끝나 업무가 재개되고 2월부터는 정상적인 업무를 시작하였다.

단지 동남아시아 시장의 비료거래에 농작물 시황의 저조와 수요 계절, 경제, 통화등 금융 정세의 불안정이 곁들어져 전체적으로 저조한 상태이며 2월들어 재개되면서 본격적인 상황으로 연계되는 것 같다.

중국관련 비료에서는 춘절 후의 요소 수출, 인비(DAP), 가리 등의 수입거래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2001년에는 WTO 가입에 의한 무역 자유화와 문호개방으로 향하는 전환기로서 중국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월 31일 >

## ○ 중국; 동남아, 서남아 및 북중미로 향하는 요소 수출 늘어날 듯

관련업계에 따르면 작년 중반기경부터 요소의 해외 수출을 시작한 중국은 금년까지 100만톤 정도(계약분 포함)에 달하는 물량을 수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동안에 이같은 요소수출에 도달한 것은 가격적으로 싸고 타 쏘스 비료와 경쟁이 가능할 뿐만아니라, 가격면에서 국내보다 해외로 향한 실질 가격면에서 경쟁이 되고 동시에 공급여력이 풍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이 요소 수출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작년 하반기부터로써 중국품이 품질이나 배송에 문제가 있어 거래한 바이어에게는 모험적이며 관련업계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출을 할 수 있는지 전행사항을 지켜보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가격 문제는 본래 품질면에서도 특히 문제가 없는 것이 증명되어 판매가 순조롭게 전개되었다.

이 결과 이전 IFA 지역회의에서의 추측에서도 작년 8월부터 동년말까지 계약 베이스로 60만톤에서 70만톤 혹은 80만톤 가까운 수출이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의 관련업체에 의하면 『중국의 지금까지의 요소 수출에 100만톤 계약설이 있으며 양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라는 견해가 유포되고 있다.

이들 수출선은 이미 단편적으로 보도된 바와같이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지아 등 동남아시아와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등 서남아시아, 나아가 미국 등 북중미 등이다.

중국은 이전까지 년간 600만톤 혹은 800만톤의 요소를 수입하여 세계의 요소 수급을 좌우하는 최고의 바이어였다. 이 수입국인 중국이 이번에는 수출국이 되어 더욱 양적으로도 공급측의 일각을 점유하는 기세로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국의 금후 대외 요소 수출동향은 이미 100만톤 수출설이 나도는 가운데 국제 수급 시황에 일석을 던지는 것으로 내외업계에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화 2001년 1월 22일 >

○ 미국 DAP, 일도·호주 등의 등장으로 지위 하락

미국 DAP의 시장 지배력은 최근 서서히 힘이 약해져 가고 있고 그 지위는 저하되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다.

메이커가 생산 조정을 계속하고 있지만 가격의 저하는 가지지 않고 혼미의 상태에 있는데, 이 표면에는 최근 인도(오즈와르)나 호주(웨스턴·마이닝)의 공급 참여에 의한 수급관계

~~~~~

의 완화에 있다고 업계측은 받아 들이고 있다.

미국의 주요 인비 메이커인 IMC나 칼리는 금년 초에 들어와 DAP 생산 조정을 더욱 강화, 수급 개선 및 가격 제조정 대책에 몰두하고 있다. DAP 시황은 메이커가 생산조정 대책으로 일정한 수준까지 회복하는 효과를 보았다. 그러나 오랫동안 계속되지 못하고 새로운 약세의 수렁에 빠져있는 것이 현실이며, 감산으로 수급 완화와 재고 증가는 어느 정도 시정되었지만 이전과 같은 조정 시세와는 거리가 먼 상황이다.

이러한 DAP의 수급, 가격 환경에 대해서 소식통은 인도나 호주의 신규 메이커의 생산, 공급 참여에 의해 미국 메이커 등의 감산 대책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요컨대 미 DAP의 시장 지배력은 약화되고 종래의 수급이나 가격에 관한 리더격의 지위는 급속히 저하하는 느낌이 있어 정세는 변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신흥국가인 인도(오즈와르)와 호주(웨스턴·마이닝)는 작년초부터 생산을 시작 하였지만 당초에는 프랜트의 비정상 가동, 원료문제, 일기피해 등에 의하여 생산이 순조롭지 못하였지만 그 후에는 생산이 순조로워 가격 약세에서의 탈출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였다.

인도의 오즈와르는 년간 생산능력 80-100만톤으로 풀 가동하면 양자에서 300만톤의 공급 증가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것이 미 메이커의 생산 조정에도 불구하고 시황 약세를 면치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동 소식통은 보고 있는 것이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월 19일 >

○ 요소 국제가격 동향

요소의 국제 가격은 금년초 10일 사이에 급등 국면으로 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중동산이 FOB 150\$대, 흑해(에즈니) 선적이 130\$대, 인도네시아산이 130\$을 초과하는 등 고가 수준이 되었다.

단번에 30\$ 전후의 상승으로 업계측에서는 97년 전반기 이후 수년만의 높은 가격이라고 논평하고 있고 미국의 수입 증가등으로 최근 1-2개월은 계속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요소의 국제 시황은 작년 12월부터 약세를 벗어나 회복하는 상태로 변하였으며 이것은

미국의 원료 고가에 의한 메이커의 생산 휴업이 계속되고, 사용자는 공급 부족을 커버하기 위하여 중동, 러시아, 인도네시아, 중동산 등의 비축을 서둘렀기 때문이며 이 결과 이들 제품이 미국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은 상승을 보였다.

업계측에서는 1월 상순의 한국 남해화학의 요소 입찰 결과 등으로 볼때 이 시황은 작년 말에 비해 15-20\$가 상승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요소 시황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되는나 하는 것이고 업계측에서는 아르헨티나 등의 신규 플랜트의 가동 지연으로 공급 증가가 없는 이상 적어도 최근 1-2개월은 지속될 공산이 크다고 보고 있다.

최근의 요소가격의 급등이 이제부터 어떻게 곡선을 나타낼지, 이 시황이 지금까지 저가·하락 그리고 일정한 가격 상승을 되풀이한 와중에 지금까지와는 달리 크게 변하는 일반 상승일 뿐이라는 것이다.

< 일본무역일일통신 비료판 2001년 1월 17일 >

♣ 백년을 살 것처럼 일하고 내일 죽을 것처럼 기도하라.

< 프로그램을 위한 >